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찬양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로마서 15:11)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 기적과 은총으로 만 성령 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제 7:10).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일찬양예배 때마다 교구와 각 부처에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는 갓난아기에서부터 90세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시 133:1). 이런 흐름을 잇는 금요찬양집회는 그야말로 은총의 도가니입니다. 이미 연승에 들어간 크리스마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며,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시편 속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시 81:2). 이 찬양의 은혜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충현 음악아카데미입니다. 현악·목관·금관악기는 물론 성악, 오르간, 피아노, 음악이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충현 음악아카데미 시간표

과목	일시	과목	일시
찬양	토	화·목	토
오보에	화	수·목	토
플리네티	토	화4시(2시간 4명 그룹)	토
혼	토	오르간	화·목
현악	토	화·수	토
현악	토	토1시·3시	토
악류	수·토	목5시·토2시·4시	토
바이올린	매일	반주법	목·토
비올라	화·토	수·토	토
첼로	화·목	피아노	화·목

문의/장원희 집사 552-8200(내선 259) · 010-9004-9140

*다음 주일(22일) 찬양예배 시, 제4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렘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약한 자를 배려하라

(로마서 14:13~23)

다. 강한 자들은 참 자유함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지만 그들 곁에는 약한 자가 있다. 강한 자들의 자유는 약한 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 결과로 약한 자들은 판단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믿음의 행동일지라도 약한 자가 믿을 없이 따라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한 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롬 14:14~17).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배려해야 한다(롬 14:18~19; 딤후 1:15~16). 그레아한 참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전통과 예식과 절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한다. 약한 자의 넘어짐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한 강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 물론 의심하고 먹은 약한 자는 정죄되었다(롬 14:20~21).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수 있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형제들을 배려해야 한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

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다(롬 14:19).

약한 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처럼 매여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하여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자제해야 한다. 바울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순종함으로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고전 8:8-9, 12). 바울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들이 자제하라는 것이다(롬 14:22). 이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려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다.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 그러므로 자제할 수 있다(롬 14:23).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를 자제하는 것은 음식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형제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만일 약한 자가 확신이 없이 그지 다른 사람을 따라서 먹고 마시면 그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강한 자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모두가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아름답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넓은 길이 아니며 좁은 길이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 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예수님은 강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다(요 21:17~18; 벰전 4:12~13).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죄다.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 아멘.

THE CROSS, THE CURE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What does the cross have to do with a troubled church? When the church of the Corinthians began experiencing a lot of problems because of the immorality among its members, Paul decided to preach on the cross as a remedy for this condition. Carnal divisions and deviant practices were destroying the Corinthian church, and Paul knew that the preaching of the cross was the answer they needed. Facing the cost of the cross can bring personal revival. The preaching of the cross meets us where we live.

The cross is the cure for division. Paul told the Corinthian church. "Now I exhort you, brethren,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ou all agree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made complete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For I have been informed concerning you, my brethren, by Chloe's people, that there are quarrels among you"(1 Cor. 1:10-11). The Corinthians were fighting over what they thought were different belief systems, saying, "I am of Paul, and I of Apollos, and I of Cephas, and I of Christ"(1 Cor. 1:12). The members of the Corinthian church were following after men. Paul removed himself from the center of this attention, telling the church not to follow him. "Paul was not crucified for you, was he? Or were you baptized in the name of Paul?"(1 Cor. 1:13). The focus of faith must always be on the One on the cross. Think about Jesus' suffering at Calvary. As He was dying,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Lk. 23:34). When one of the criminals hanging next to him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Lk. 23:42). Jesus replied.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43). Jesus died for us. We need to remember His crown of thorns, and His nail pierced hands and feet. How petty our division becomes in the light of the suffering of Christ? Calvary ended all divisions and united the church in serving Jesus Christ. Our church problems always focus on human interests and people's different opinions because no one really concentrates on the cross that Jesus took for our eternal life. My dear friends, when you think about the cross it cures all divisions.

The cross is the cure for dying. Today's Bible verse clearly states.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1 Cor. 1:18). The world and everything and everyone in it is perishing, but the cross gives life. If you focus on human beings and earthly things, the cross seems stupid. Foolish people think the cross is the poor man's way to cope with life's problems. Foolish people are perishing people. They are perishing because they are sinners.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Rom. 3:10-18). Everyone perishes from sin. "becaus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for through the Law comes the knowledge of sin ...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0-23). Human effort cannot bring you salvation. Can you cure your sin? Jesus said.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it is these that testify

about Me; and you are unwilling to come to Me so that you may have life"(Jn. 5:39-40). People perish because they will not come to Jesus Christ; they will not believe in Him. John 3:36 says.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Many religious people are perishing because they think their good works can save them, but this cannot keep anyone from perishing. Keeping the Law cannot keep one from perishing. Paul exclaimed.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needlessly"(Gal. 2:21). Becoming a child of God contains no human clement; nor does it lie within the scope of human achievement.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Jn. 1:12-13). Are you certain of salvation? Religious ceremonies cannot keep you from perishing, only receiving the message of the cross by faith can save you from perishing! Unto us who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Jesus suffered for us.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Is. 53:5-6).

The cross is a cure for doubting. Sometimes we ask. "Why did God do this?" or "How come God did that?" These questions come when you focus on earthly wealth. The greatest of earthly wealth, which the world prizes so highly, is the very antithesis of the wisdom of God. God said.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and the cleverness of the clever I will set aside"(1 Cor. 1:19). Paul further explained.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come to know God, God was well-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1 Cor. 1:21). An honest investigation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removes all doubt. Christ died for our sins making justification possible. Romans 3:28 states. "For we maintain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works of the Law."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he mighty proof of His deity, and this is affirmed by the Holy Spirit. "Who was declared the Son of God with power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Jesus Christ our Lord ... among whom you also are the called of Jesus Christ"(Rom. 1:4-6).

Our church needs to focus on the cross and experience unity and revival. Church believers who focus on the cross find it easy to forgive. Sinners who come to Christ at the cross find salvation. What is your faith truly vested in? Do you believe in the cross, yourself, or valuable earthly things? Most people miss the cross and chase after what they perceive are valuable worldly ideals. Nothing worldly can cure death; the only cure is the cross that Jesus took. There are only two final destinations: eternal death and eternal life. The cross leads you to life and cures doubting, divisions and death! 

십자가, 치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김성복 목사

만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와 십자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속적인 본성과 비정상적인 행실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치워진 대가를 직시할 때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본쟁이 해결된다

십자가는 본쟁을 멈추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본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이야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본쟁이 있다는 것이라”(고전 1:10~11).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전 1:12). 그들은 사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 주면서 스스로 그 관심의 중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전 1:13). 믿음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주님 곁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라고 말했다고 바울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시 면류관과 못 박힌 손과 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본쟁은 얼마나 편협한 행동입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는 모든 본쟁을 그치게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항상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사람들의 의견 차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냈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때 모든 본쟁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세상이 그 안에 있는 만큼,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과 세상의 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낙담한 사람들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으며 …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롬 3:10~18).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롬 3:20~23). 인간의 노력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

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9~40).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36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선행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인 역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선행은 그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업적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종교예식이 여러분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더 여러분을 멸망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를 꿰뚫어 그가 상한은 우리의 죄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의심에서 벗어나 믿는다

십자가는 의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리실 수가 있지?”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생깁니다. 세상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즉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만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전 1:19). 바울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십자가와 부활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28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4~6).

우리 교회 역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십자가로 인한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자들은 용서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오는 죄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십자가, 자기 자신, 세상의 가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놓친 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세상의 우상들을 붙잡기 위해 세상을 좇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죽음, 아니면 영원한 삶. 십자가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며 의심과 분쟁, 죽음에서 구원해 줍니다! ■

메시아의 죽음 40

예수님의 겔세마네 기도(장소)

14:26). 겔세마네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구체적인 지명을 밝혔으나 26:36 ; 막 14:32).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그 곳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누가는 예수님이 승판에 따라 감람 산으로 갔다고 기록(눅 22:39)하였고,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그 곳'(요 18:1)이라고 기록하였다. 모든 제자가 그 곳에 대해 알고 있었다(요 18:2). 이것을 통해서 누가와 요한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겔세마네라는 장소를 통해서 누가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숨명료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며 불쌍한 자,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밤에는 바로 그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다(눅 21:37). "그는 육체에 재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7~9).

한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장소에 자주 왔을 것이다. 제자들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었다(눅 9:28~30). 그러나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는 그 곳에 안주하려고 했고(눅 9:33), 요한과 야고보는 권력의 욕심을 드러냈다(마 20:21).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기도(막 9:29)였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겔세마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곳'에 도착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눅 22:40)는 예수님의 특별한 당부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깨어 있으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찬미하며 감람 산에 있는 겔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마 26:30 ;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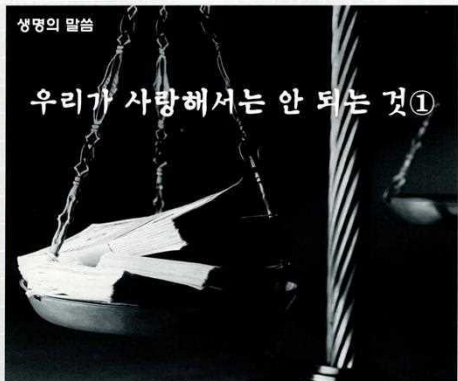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잠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을 도왔던 것은 천사였고, 예수님은 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눅 22:42~44).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의 장소가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장소를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의 있던 곳이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마 17:5).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눅 22:42).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심으로만 가득하지 않은가?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 곳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곳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바로 십자가다. 겔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다(요 11:35). 이제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자.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자.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찬 324장), 야넌.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한일서 2:15-17)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위에 세워지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받습니다(요 3:16). 영원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만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을 것이며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심오한 정들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지고지순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요일 3:14).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듯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망글까지

정말 감사했던 일은 농아인 중에 집에 크란 바버분이
 • 정말 있을 정도로 절친한 무슬림 가정을 심방하여 목
 • 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
 • 다. 전직인들도 같이 하기 힘든 전통적인 무슬림 집
 • 에 초청받아 복음까지 전했던 우리 팀원 모두에게 감
 • 대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송병영 안수집사)

• 우리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초청 받
 • 게 불러 주셨다. 13명의 농아인을 속속로 인도하시고 긴
 •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며 영적기도를 마칠 때까지의 과정
 • 은 기적과 같았다. 말도 통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손
 • 과 표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사
 • 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두 손을 잡고 영적기도
 • 를 할 때에는 눈 물이 찬물이 되었다. (김유식 집사)

• 마치 바로 건물 뒤에 초강만 학교 건물이 있
 • 었는데 그 곳에서 농아인 어린 양을 만났습
 • 니다. 참으로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 대
 • 화를 나누었는데 모두 저를 보고 낯선 이방
 • 인이라 매우 신기해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 둘러싸여 대화를 하면서 마음 속으로 주님의
 •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간
 •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박종환)

• 제가 중언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선교를 하는 일에 대해 고민이 많
 • 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며칠씩 다녀올
 • 정도로 생활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
 • 를 하는 일에 같이 간직 났습니다. 계속 기도하자 주님은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깨달
 • 음이 있었고, 걱정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
 • 각에 보니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예나)

• 더욱이 우리가 농아이고 수화를 사용하기 때
 • 문에 경찰들과 전통적 이슬람 의상을 입는 무슬
 • 림들의 감시를 피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
 • 까 그러했다. 무슬림 나라에다 보니 예수님이 미
 • 리 아시고 어린 양들을 예비해 두셔서 쉽게 예
 • 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 지난 선교 때 받았던 은
 • 사를 더 많이 얻었고, 그동안 은둔하던 내 마음
 • 이 다시 회복되어 너무 좋았다. (윤종영)

믿음의 손짓

에바다부

• 무슬림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 느꼈습니다.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디
 • 들을 가든지 눈길 벗어날 수 없었고 전도지를 보
 • 고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화를 열심히 익
 • 히서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
 • 니다. 결국 여러 곳을 탐방한 끝에 예수님 믿지 않는
 • 많은 농아인을 만났습니다. (김영민)

• 선교지는 이슬람이 강한 나라라서 정말로 두려움이
 •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여 나아
 • 갔습니다. 선교지를 보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
 • 난하고 거러도 지쳐보인다며 냉색과 냉미도 많
 • 아 잘못하면 뺨이 날까 봐 겁도 났지만 처음부터 마
 • 치까지 주님께서 보오며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청
 • 말 감사드립니다. (이수정 집사)

• 3개월 동안 선교훈련과 수화훈련을 받는데 일
 • 돌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 기도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
 • 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
 • 습니다. (최영동 집사)

• 농아인을 만났는데 수화를 많이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전
 • 하는 데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달릴 분
 • 은 예수님뿐이기에 도와 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
 • 했고, 주님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
 • 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화도 잘 알아야 하겠지만
 • 그보다도 그 영혼을 붙잡기 여리고 복음을 전해야 겠다
 • 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또 주님께 간구하는 기
 • 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나래)

• 농아인 협회에 들렀을 때 많은 사람이 물려들자 경찰이 와서 지
 • 키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 수화를 알지 못하여 담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
 • 니다. 그 나라의 수화가 부족하여서 답답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 복음을 잘 전하고 속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박재혁)

복음의 능력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떠난 선교. 8월 9일 동안
 • 섬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지 곳곳에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단기선교
 • 를 다녀오면서 몇 개의 전도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 수 있을까 위구르인 듣기도 했다. 하지만 팔아로 나간 빌립에게 예
 • 다오라 내시라는 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
 • 양에 배 설교 말씀을 들은 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회개함으로 단기간
 • 교를 준비하게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의 어린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였는데 사역 중
 • 반 즈음 정말 예비된 귀한 어린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다. 5살 소년 바트
 • 비트공은 전도지를 조심스럽게 받더니 한 문장 한 문장 읽어주는 전도 언어와
 • 영적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전도지를 꼭 쥌 아이의
 • 두 손을 잡고 한국어로 기도할 때에 이 두 눈은 꼭 감더니 "아멘"이라고 고백하였다. 교
 • 회에서 유아부 5살 반을 맡으면서 아이 훈련을 많이 받은 아이들도 기도 시간에 두 눈을 꼭 감고 기
 • 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5살 소년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느끼지
 •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신 은혜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물결 청년들의
 •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통해 물결의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8월 9일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주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물결의 영혼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
 • 하시고 대량 받은 자들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
 • 다.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최민에게 새 생명 주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 물결에서 만난 예비된 영혼들과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다시
 • 한 번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다. 할렐루야!

김희정(청년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6일(월) ~ 8월 24일(화)	8교구 2팀	윤병식

현제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3일(금) ~ 8월 21일(토)	7교구 2팀	강진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0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일(월) ~ 8월 10일(화)	대학부 3팀	권영일
8월 2일(월) ~ 8월 10일(화)	11교구 3팀	조영철
8월 3일(화) ~ 8월 11일(수)	2교구 2팀	최규태
8월 3일(화) ~ 8월 11일(수)	10교구 2팀	김형태
8월 3일(화) ~ 8월 11일(수)	17교구 3팀	김종민
8월 3일(화) ~ 8월 11일(수)	22교구 1팀	김신수
8월 4일(수) ~ 8월 12일(목)	5교구 3팀	홍금성
8월 5일(목) ~ 8월 13일(금)	7교구 3팀	김은심
8월 6일(금) ~ 8월 14일(토)	청년1부 4팀	정민인
8월 6일(금) ~ 8월 14일(토)	9교구 2팀	조영구



2010년 여름성경학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 22:20)

예수님이 꼭 오신대요!

영아부

· "준비됐어요. 당신은 예수님 맞을, 준비됐어요. 당신은 예수님 올 때, 빨리 나가 말아야 할 준비됐어요." 이 찬양을 아이들이 함께 부르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말하게 준비해 주신 말씀, 찬양, 만들기, 인형극, 특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등부 교사(전용영 열매)*

· 특강시간에 부모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전도사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더워서 좀 힘들었지만, 좋은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경영 집사(아도윤 열매)*

유아부

· '나사로와 부자'라는 마당극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 전하는 나사로를 보며 많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지요. 또 예수님 몸에 내 마음을 붙이는 것도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고, 천국문 통과 놀이도 참 좋고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점심은 차갈밥과 수박 화채, 간식도 있었는데 맛있었고 아이들도 잘 먹었어요. *말은주 집사(아현 열매)*

유치부



· 수박이 제일 맛있었어요.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게임이었어요. *전아론*

· 교사로 섬기기 6년 정도 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일을 정해놓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급식기도를 했어요. *서정민 교사*

· 마지막 성경이 참 좋았어요.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더 재미있게 잘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또한 아이들이 함께 믿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성희 권양(한지현 열매)*



초등 1,2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기존과 달리 교육개발소위원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1부와 2부 선생님들이 하나로 뭉쳐 준비하여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로웠다. 오전 프로그램은 초등1부의 경우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시청각 교육(애니메이션)으로 진행하였고, 초등2부는 예수님의 일생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직접 같이 꾸미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점심식사 이후부터는 초등1부와 2부가 시간차를 두고 공통 프로그램인 마당놀이 형식의 '상향극'과 예수부미(예수 품은 아이들)들의 방주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 성경학교와는 다른 형식을 차용하여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오용을 이끌어 내어 진심이었다는 평이다. 더불어 공동체 훈련 역시 7가지 주제(믿음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송피의 확신, 끊임없는 전도심신, 친밀한 성도간의 교제)로 실시되어 학생들 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참 믿음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알찬 성경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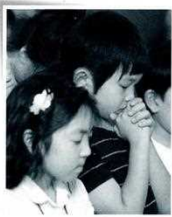
초등1부

· 주일에 매번 듣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천국으로 갈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사님 설교가 이번에는 크고 확실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죄지자(여름성경학교 상향극 중 '죄'를 상징화한 캐릭터) 같은 것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겉내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아결*



· '제임의 방'에서 눈을 가리고 소리만 듣고 파라는 거(인도의 확신)랑 마당극이 재미있었어요. 주스랑 꿀떡이랑 도너츠 간식도 맛있어요. *최시은*

· 마당극 코너는 처음 보았는데, 거기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지자가 나왔어요. 죄지자처럼 사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언제나 예수님을 섬기는 아이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더욱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게요. *나예은*



초등2부

·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순간 좀 무서웠지만,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김희영*



· 많은 활동을 했는데, 특히 재미있는 시간은 마당놀이 상향극이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은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집이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꼭 같이 나오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예은*



·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게임 중에서 '죄 찾기 게임'(사죄의 확신)이었어요. 오늘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수영*

· 게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술가락 릴레이'(인도의 확신)가 가장 재미있었고, 마당놀이도 재미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와겠다고 생각했어요. *백지현*

총현칼럼

십자가 복음으로 열린 교회

태양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여름이다.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이 산이나 들로 휴가를 떠나는 이 때 총현의 성도들은 매주 교회 주변을 돌며 전도하고, 황금 같은 휴가 대신 해외 단기선교에 온 힘을 쏟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가!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후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임신했던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 그것도 괴수라고 고백하였다.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모진 핍박과 환난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쉬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심령에는 영원한 죽음을 이룬 죄인 괴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 지금, 총현의 성도들이 십수 년 전과 달리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찬란한 영광을 볼 때 그저 감사할 뿐이다.

지난 십수 년 전, 총현의 모습은 안타까움의 극이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며 한국 교회의 장자 역할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라는 말들은 총현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였다. 이 온종일의 회개에, 교회는 자신을 저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제련의 과정을 시작했다(마 16:24). 복음에 집중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소나기처럼 내렸다. 단순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십자가 복음'에 많은 성도가 눈물로 회개하였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며 회교를 떠난 성도들도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교를 떠났던 그들이 지금,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나니 아직도 저러가 면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회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품어 주었고 함께 십자가 길로 나아가고 있다(눅 17:3).

초대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있을 때 사탄은 사람과 환경, 이단을 통해서 회교를 흔들어 분열시켰다. 이에 때로는 관대하게, 때로는 엄하게 처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서신 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바울은 주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고 가르쳤다(살후 3:14). 요한은 더 강력하게 가르쳤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요일 1:10~11). 이 모든 기준은 인자성(人之常情)이 아닌, 복음(십자가)이었다. 초대교회는 복음에 기초하여 움직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이다. 총현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벧후 3:3). 정확히 말해서 회개하면 누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마 3:8).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십자가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를 품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으로 열린 총현교회에서 오늘날 믿음을 예수님과 한 겹쯤씩 나아가자.

전종훈(장로, 담임사역)

어린이 영어캠프 예수님이 진짜예요! Jesus is Real

주중 및 주일 영어교실 주교로 열린 어린이 영어캠프가 총현기도원에서 온여 중에 마쳤다. 처음으로 시도한 캠프였기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에 비하면 그 문제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다. 영어로만 진행된 캠프는 예배, 코너학습 및 활동게임 등 특별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학생들의 심령에 'Jesus Christ' (딤후 1:15)가 심겨졌다.



1. Surprise!



- 교회비를 타고 기도원에 가는 길도 재미있었고, 영어로 모든 것이 진행되니 신기했어요.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Linda, 4학년)
-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예배, 제명, 게임 등 재미있게 지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Jane, 4학년)
- 몸이 아파서 못 갔었는데 가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은혜로운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영어캠프를 어릴적 주님께 감사해요. (Sophia, 5학년)
- 예수님께 대해서 배우고, 모르는 영어단어도 배우고 아주 좋았어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Azel, 3학년)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English camp and all teachers. I confess that I have not prayed all the time. Help me to pray continually and preach the gospel. I pray in Jesus' name Amen. (Celia, 3학년)

Dear Jesus, Thanks for giving me eternal life. We are all sinners please forgive all our sins with Jesus' precious blood. Please help us not to fall into temptation I know Jesus is real to me. In Your precious name I pray. (Louis, 4학년)



Dear Jesus, Thank you for our English camp and all teachers who help us to learn about you. I confess I have sinned against You. Please give us the faith to tell our friends about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Tom, 5학년)

2. Thanks to Jesus!



Thank you that You forgive me and give me eternal life. I didn't love my friends, family. Please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so I can spread the gospel.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Grace, 2학년)

140여 명의 학생들과 60여 명의 교사와 도우미들이 함께 했던 캠프의 결론은 이것이다. "Jesus is Real!"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시작점이 되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가을 학기부터 더욱 새롭게 변모할 주일영어교실, 그리고 주일에 변모없이 진행되는 주일 영어교실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재사를 드릴 거룩한 재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문의 / 010-5892-8200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셔서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957	김원희	통신반	18	주영선	965	한재혁	적응반	16	노은영
958	홍정현	양육반	12	오은경	966	이지현		16	노은영
959	이창재	적응반	5	김정화	967	한서연	초등2부	16	노은영
960	김성은	중등부	7	김현정	968	한태연	초등1부	16	노은영
961	김지효	모임	10	이정애	969	오병택	양육반	4	이길자
962	조하나	양육반	22	배성환	970	김주희	통신반	7	배성환
963	이효정	중등부	5	지형정	971	김주연	양육반	18	
964	오성준	적응반	13	윤재현	972	류규성	통신반	21	류정희

